지하 1층 동네 LP바, AI로 홍보물과 운영 자료를 전부 만들다

아날로그 55-47 ·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147m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AI 활용 · 첨부 자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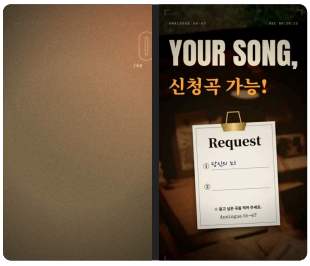
- 지하라 지나가다 눈에 잘 띄지 않음. 보여 줄 영상·홈페이지 없음
- 메뉴판은 지난해 8월판에 손으로 고친 흔적
- 신청곡은 종이 쪽지 — 손님은 어떤 판이 있는지 모르고, 가게는 기억에 기대 선반을 뒤짐
- 알바 교육은 전부 말로, 재고 부족은 단톡방에 "없어요" 한마디

선택

- 홍보물 외주 견적 **약 200만 원** — 작은 가게엔 부담
- 매니저가 직접, AI(Claude Code)와 함께 만들기로
- 대표 동의, 단톡방 분석은 직원 동의

원칙 — 가게에 실제로 있는 것만 쓴다. 장비·휴무일·시그니처는 사장님이 확인한 목록만 AI에 넣고, 칭찬 문구는 지어내지 않고 네이버 방문자 리뷰 키워드(96명 참여, "음악이 좋아요" 81명)를 그대로 옮긴다. 모르는 것은 빈칸, 확실하지 않은 것은 표시.

만든 것 7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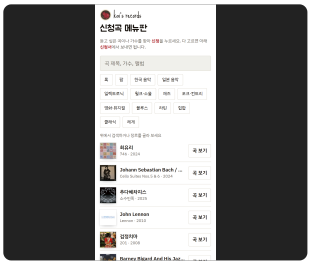
홍보 영상
15초·30초·카톡 배경 15초. AI가 장면·화면·배경음 코드를 짜서 렌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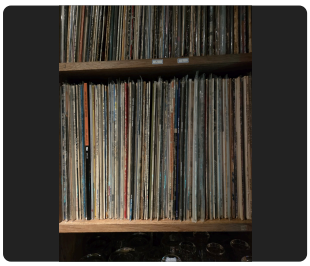
홈페이지
휴대폰 한 장. '오늘 19:00 오픈'·영업 중 표시 자동, 가격은 싣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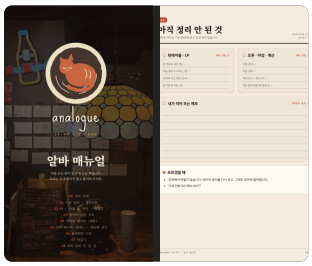
메뉴판 9쪽 · 명함 · 소개서
가격은 표 파일 한 곳에서. 무료 라이선스 사진만, 출처 보관



휴대폰 신청곡 메뉴판
손님이 검색해 '신청' → 직원 화면에 바로. 대기 순번·재생 알림. 지금 실제로 사용 중



LP 목록
선반 사진 12장 → 756줄. 흐린 125줄은 AI가 노란색 표시



알바 매뉴얼 19쪽
차단기·술 자리·레시피·플레이팅. 모르는 칸은 빈칸(오른쪽 쪽)

4,162건
단톡방 17개월치 대화 분석

210건
재고 이야기 → 문제 3가지 무엇이 / 이름 제각각 / 누가 채웠나

재고 알림판
자주 떨어지던 항목으로 구글 시트 알림판. 새 가입 0개

AI가 한 일 / 사람이 한 일

· AI: 영상·홈페이지·메뉴판·신청곡 메뉴판 코드 작성, LP 책등 판독, 단톡방 분석, 매뉴얼 정리, 확실하지 않은 곳 표시
· 사람: 사진 촬영·선택, 사실 확인(사장님), 노란 줄·빈칸 확인, 휴대폰으로 최종 확인
· 공모전에는 레시피가 담긴 매뉴얼 전문을 첨부하지 않음(표지·빈칸 쪽만)

역할 나누기
판단과 사실 확인은 사람이, 반복과 정리는 AI가

결과

0원	약 2주	+30%	756줄
외주비 (견적 약 200만 원)	9월 말~10월 중순 (재고 알림판은 8월)	매출, 9월 말 이후 약 3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LP 목록 선반 사진 12장에서

매출은 가게 매출 기록 기준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어 전부 AI 덕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바뀐 것	내용
손님 반응	영상·홈페이지 링크를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걸었고, 보고 온 손님들이 "홍보에서 본 그대로"라며 좋아함
신청곡	휴대폰 메뉴판으로 실제 신청곡을 받는 중. 가게에서 틀 수 있는 판만 올라 있어 신청한 곡이 실제로 나옴 — 재생 알림을 받은 손님들이 아주 좋아함
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가 눈에 띄게 늘어남
알바 교육	매뉴얼을 건네고 같이 한 번 훑으면 끝 — 교육이 훨씬 쉬워짐
한계	무료 호스팅이라 검색엔진 노출 안 됨 → 인스타그램·네이버·명함 QR로 링크를 직접 건넴

나만의 방식

- **사실 목록이 먼저** — 사장님 확인 거친 것만 AI에 줌
- **칭찬은 손님 말로** — 리뷰 키워드 숫자를 그대로
- **손님 손에 목록을** — 있는 곡 중에서 고르는 신청
- **불리한 문구는 거름** — '1인 2곡' → '신청곡 가능!'
- **모르는 건 빈칸** — 튀김 온도를 AI가 일반론으로 채우지 않게
- **확실하지 않으면 표시** — LP 노란 줄 125줄
- **권리·사생활** — 직원 동의, 무료 라이선스 사진, 인쇄물에 직원 얼굴 없음

우리 동네 가게도 따라 하기

1. 가게 사실 목록 만들기 — 영업시간, 휴무일, 대표 메뉴, 자랑할 장비·재료. 사장님 확인
2. 휴대폰으로 사진·짧은 영상 찍기,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키워드처럼 손님이 남긴 숫자 모으기
3. AI에게 지시 — "이 목록과 사진만 써서 만들어 줘. 목록에 없는 사실은 쓰지 말고, 모르는 칸은 빈칸으로, 확실하지 않은 건 표시해 줘."
4. 가격처럼 자주 바뀌는 정보는 표 하나에만
5. 고를 것이 많은 가게(판·책·원두)는 목록을 손님 휴대폰에서 열 수 있게
6. 결과물은 휴대폰으로 열어 보고,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읽기

> AI 이용료 말고는 무료 호스팅·구글 시트·무료 라이선스 사진으로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해 보니 AI가 잘 쓴 문장보다 사장님이 확인한 사실 한 줄이 손님을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